

무안 남성동마을 공동창고 '특정업체 혜택' 논란

郡, 작년 4월 '자율개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4억 투입해 조성 컨테이너 설치·화물차주차등 주민 불편...郡 "법적문제 없어"

무안군 남성동마을에 조성된 공동보관창고를 특정 물류업체가 사업장으로 활용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청계면 남성리 일원에 남성동마을 자율개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816만원을 투입해 389.38㎡ 규모의 마을 공동보관창고 1동을 준공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 마을에 꼭

필요하거나 마을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군이 추진한다.

군은 사업 선정 시 전문가를 통해 주민 참여도, 사업 내용의 독창성 및 효과성,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청계면 남성리에서는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관창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산물 및 농기계 보관

등 주민 편의성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자율개발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해당 공동보관창고가 조성된 이후 특정 물류업체가 바로 옆에 컨테이너를 설치, 다수의 대형 화물차량이 주차공간을 차지해 실제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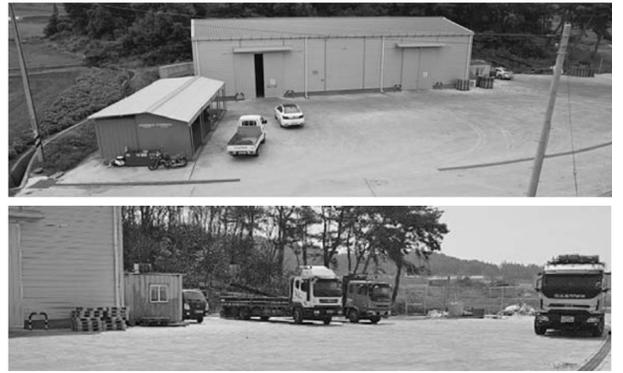
게다가 마을 진입로 주변에 관련 물류업체의 안내판까지 설치돼 자율개발 마을만들기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지적에 해당 업체는 최근 안내판과 컨테이너 내부에 컵

퓨터 등 사무 집기를 치웠으나 컨테이너 입구에 '마을 휴게실'이라는 명패를 달아마을에서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무안군 남성리 한 주민은 "청계면 소재 한 물류업체가 마을 공동보관창고 준공 이후 해당 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군이 수개월 동안 행정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을 보면 마을주민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닌 민간업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서도 그동안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무안=김상호기자



무안군 청계면 남성리 일원에 자율개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마을 공동보관창고와 한 물류업체의 컨테이너 설치(위쪽)로 대형화물차량의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안=김상호기자



해남매일시장이 27일부터 11월22일까지 '달달야행' 시즌2를 운영한다. 사진은 상반기 진행한 달달야행 시즌1 모습. <해남군 제공>

해남매일시장, '달달야행' 시즌2 재개장

매달 둘째·넷째 금요일...오늘 '별이 빛나는 밤' 테마 공연

여름철 잠시 휴장했던 해남매일시장 야시장이 이번 주부터 '달달야행' 시즌2로 재개장한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11월22일까지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팡팡달달문화야행'을 운영한다. 올해부터 해남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해 열리는 해남매일시장 야시장 행사인 달달야행은 먹거리 판매뿐 아니라 볼거리와 놀거리, 즐길거리까지 풍성한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사 첫날 27일에는 가을테마인 '별

이 빛나는 밤'에 맞춰 가을 노래 위주로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30분마다 6번의 경매행사가 열려 매일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과 수산물, 4대 주류 상품도 경매로 판매한다.

특히 매일시장 내 안주류를 판매하는 대부분의 점포가 참여해 달달야행의 먹거리인 '4대 주류'를 선보인다. 해남매일시장 4대 주류는 '치맥(치킨+맥주)', '무소(무침류+소주)', '부막(부침개+막걸리)', '간폭(건어물과 꼬치류+폭탄주)'으로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4대 주류와 함께 해남의 농산물로 만든 '연호 수제맥주'와 '해남 쌀 아이스크림'이 판매될 예정이다. 이 밖에 어린이들을 위한 '초콜릿 풍류체험'과 매일시장 2층 청년물의 청년상인들과 관내 공예전문 강사들이 협업한 '공예체험'이 무료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해남읍에서 당일 사용한 3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가져오는 경우 등 참여조건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팡팡 없는 돌림판'도 운영해 즐거움을 더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매일시장 달달야행 행사가 해남군민과 해남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행사로 자리잡아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용기기자

목포어울림도서관 '사그락 사그락 가을' 시필사운영

내달 2일부터 11월30일까지

목포어울림도서관은 26일 "오는 10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사그락 사그락 가을' 릴레이 '시'필사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역 주민에게 책을 단순히 읽는 활동을 넘어 쓰고 나누는 경험을 공유하며 책 읽기의 즐거움을 누리고 지친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는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

필사 공간은 목포어울림도서관 3층에 마련됐는데 필사 도서로 선정된 시집의 시 한 편씩을 이용자들이 달레오로 써나가책한권을 만드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필사활동 소감과 좋은 글귀들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해 타 이용자와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마련됐다. 필사시집으로는 임동식회가의 그림과 나태주 시인의 시가 담긴 '그리운 날이면 그림을 그렸다'가 선정됐다.

필사 활동 참가자에게는 ▲책갈피

만들기 ▲참가 당일엔 한해 도서 3권 추가 대출을 해주는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필사 행사는 도서관 이용자·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목포어울림도서관 (061-270-12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선옥 목포시 인재육성과장은 "이 행사를 통해 어울림도서관이 시민과 책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에게는 책 읽기를 통한 지친 마음을 위로 받는 힐링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완도군, 원동 교차로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구실잣밤나무 등 난대수종 7만8천본 식재

완도군은 26일 '원동 교차로(사진)에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저장을 위한 '대규모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은 도시 내·외각에 위치한 유휴지에 대규모 숲을 조성해 생활권으로 미세먼지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탄소 흡수원 확충으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국도13호선이자 완도군 관문인 군외면 원동 교차로 일원(2.2ha)이다.

완도군은 탄소 흡수율과 산소 발생량이 많은 구실잣밤나무, 장기시나무, 황칠나무, 굴거리나무 등 지역 특산 난대수종 21종, 7만8천46본을 식재했다. 기후 대응적인 측면뿐 아니라 약 1km



의 산책로와 정자 등 주민들을 위한 휴식, 산책, 공간 등 편의 시설도 갖췄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원동 교차로 기후 대응 도시 숲은 지역 관문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해 난대림을 부각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양질의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신안 팔금도 가을 트레킹 떠나요"

내달 12-13일 팔금면 일대...A코스 12km·B코스 20km

신안군이 오는 10월12-13일 팔금면 일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금도 트레킹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페스티벌은 코끼리협동조합 주관으로 서근동대, 채일봉, 원산리 등 팔금면의 대표적 자연의 비경을 품은 지역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A코스는 12km이며, B코스는 20km코스로 진행된다.

특히 트레킹 코스 중 해안로와 임도길을 따라 채일봉으로 이어지며, 팔금면의 대표색상인 노란색을 상징하는 황금사철과 은행나무로 조성된 2km의 은행나무길을 지나게 된다.

이번 축제가 남다른 것은 각 포인트마다 숨어있는 미션을 수행하며 포인트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미션으로는 퀴즈풀기, 미니게임 참여, 시식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기념품과 경품이 제공된다.

또한 획득한 포인트는 트레킹 종료 후 포인트에 따라 추천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특별한 식사와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진행되는 부대행사로는 실크스크린, 각인, 워빙, 자수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캠핑, 백패킹 프로그램도 진행해 자연이 주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도 가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메이크샵노이즈'를 통해 온라인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신안군에서는 귀어·귀촌을 돕는 홍보 부스도 운영하며 관심 있는 분들에게 신안군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걸으며 자연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하며 행복을 느끼고, 1박2일을 보내며 팔금도의 매력을 느끼길 바란다"며 "모두가 행복한 마음을 담아 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신안=양훈기자

영암 반려동물 문화축제 '팡파르'

내일부터 이틀간...전문가 상담·토크쇼·체험 등

영암군은 26일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2024 영암 반려동물 문화축제(포스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이 주최하고 영암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첫 날인 28일에는 임동원 영암군 유기동물보호소장이 진행하는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OX 퀴즈도 준비돼 있어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9일에는 국내 유명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인 설채원 수의사가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같은 날 지장사 수안 스님의 특별한 토크콘서트도 마련돼 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어질리티존에서는 반려동물의 능력을 확인하고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문 상담가와 함께하는 행동 교정 상담 코너도 마련돼 있어 반려동물의 행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한편 문화체험을 원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단청 체험과 구름마을 산책 코스도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관 전시 운영돼 반려동물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의 시

간을 제공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특별한 캠퍼어도 진행된다. 영암의 풍부한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반려동물과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돼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일정은 영암문화관광재단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로,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나동호기자



강진군, 육군장병 동원 호우피해 복구 '온 힘'

토사·잔해물 등 처리...신속 복구 '총력'

강진군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관내 곳곳을 복구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6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작천면 교동 소하천에 군 공무원 80명을 비롯해 육군 31사단 2대대 장병 30명을 투입, 토사 및 잔해물 등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 23일 강진군은 교동 소하천 현장에 굴삭기 2대와 덤프 2대를 투입,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진군 공무원들은 폭우가 한창이었던 지난 21-22일 주말에도 휴일을 반납하고 폭우 현장으로 나서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주민들을 피신 시키고, 침수 주택을 청소하는 등 일선을 지켰다.

다.

박걸 주무관은 "현장에 나와보니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에 불편함

이 없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있어 서다행"이라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민은 위기 앞에서 똘똘 뭉쳐 하나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폭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기자

